

## 로컬플러스

군산해경, 수상안전 체험행사 펼쳐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지부와 공동 주관으로 '수상안전 대국민 체험행사'를 지난 7일 은과호수공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진 수상안전 대국민 체험행事에는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해양경찰 관련학단 및 의정대 공연 헬기·공기부양정 등 인구구조 시연과 수상페리드를 관람·체험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위해 마련한 ▲해양경찰 제복입고 사진 찍기 ▲심폐소생술 및 어린이 물놀이 교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장비 작용해 보기 ▲4륜 오토바이·수상오토바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생활불편규제신고센터 운영

군산시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방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기업·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다종 멀집지역 30개소시청·읍면동 주민센터, 군산상공회의소에 '생활불편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불편 규제 신고센터는 책임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군산시민과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누구나 신고센터를 방문해 책임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규제 신고대상은 주민불편사항, 기업(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공무원 부당 업무행태 등이며 불편사항을 신고서에 작성해 신고함에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저혈당 쇼크환자 긴급 후송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는 최근 동신동 A아파트에서 저혈당 쇼크로 인해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독거노인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웃집 주민이 당뇨를 앓고 있는 독거 노인이 인기척이 전혀 없고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도착하니 안에서는 응답이 없고 평소 지병인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여 긴급 상황으로 판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거실에 배변을 해 놓고 나체 상태로 의식이 없어 쓰러져 있는 독거노인을 119로 긴급후송 조치했다. 한편, 쇼크환자의 가족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차례 전했다.

/군산=정양원기자

## 군산 체험행사 문제점 개선 필요

관광객 유치는 성공했으나 많은 인파 몰린 박물관 환기시설 미흡·주차장 부족 미흡한 부분대책 마련 시급



군산시 연희동안 군산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주차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사급한 개선이 요구된다.